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5. 10. 29.	보도 요청일	2025. 10. 29.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063)280-7912 publicity@jeonjufest.kr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2026년 4월 29일 개막 민성욱·정준호 공동 집행위원장 연임, 2028년까지 영화제 이끈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우범기, 이하 조직위)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2026년 4월 29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10일간 개최한다.

조직위는 지난 10월 27일(월)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영화제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제27회 영화제는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열려 국내외 영화 관객 및 산업 관계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최 일정과 함께 민성욱·정준호 공동 집행위원장의 연임도 확정되었다. 두 집행위원장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제27회부터 제29회까지 영화제를 이끌게 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제24회부터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영화제 출범 초기부터 조직위에 몸담아온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제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으며,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호 집행위원장은 높은 대중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연 확장과 대중성 강화에 기여했다.



두 집행위원장 체제 아래 전주국제영화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26회 영화제는 관객 7만 명을 돌파하고 티켓 판매율 81.8%를 기록했으며, 전주만의 색이 뚜렷한 프로그램들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독립·예술영화의 다양성 확대, 관객 친화적 운영 강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문화 확립 등을 통해 영화제의 정체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조직위는 오는 11월 출품작 공모를 시작하며 제27회 영화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